

환 영 사

(유종근 : 전라북도지사)

국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행정자치부 김재영 차관님과 세미나를 주관해 주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충규 회장님, 한국재정학회 조연상 회장님, 그리고 한국지방재정학회 정해구 회장님 !

또한, 이번 세미나에서 분야별 발표와 토론을 해 주실 발표자와 토론자 및 학회 회원님! 그리고 지방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, 이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지방의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!

오늘,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는 천혜의 고장, 우리 전라북도 무주에서 『2000 지방재정 효율화 제고』를 위한 세미나를 갖고, 21세기 지방재정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,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

지방자치제도가 실질적인 성공을 거두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력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화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
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91년부터 계속되어 온 지방재정 세미나는 지방재정의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합니다.

다행히 작년까지 13.27%에 불과했던 지방교부세율이 행정자치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올해부터는 15%로 인상됨으로써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며, 그간 불합리한 점이 많았던 징수교부금제도를 『실제징세비 보전적기능』과 『재원 보전적기능』을 갖게 되는 지방재정보전금제도로 개선하여 지방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한 점에 대하여도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,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오늘 토론하게 되는 『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』과 『지방채 발행제도의 개선방

안』 및 『지방재정 효율화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향』 등은 이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.

오늘 이 세미나를 통하여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강구되고,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가 튼튼히 뿌리 내리기를 기대합니다.

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건강한 가운데 유익하고 보람된 일정이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2000년 7월 6일

전라북도지사 유 중 근